

# ebs 어휘 어법

기출유형.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놀다'는 '...에 ...을 놀다' 구조로 쓰이느냐, '...을 놀다'의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置)"의 뜻에 가까우나, 후자는 "(잡고 있던 것을) 풀다(放)"에 가깝다.	

- ① -우리 형은 세상 물정에 밝다.  
-오늘밤은 유난히 달이 밝다.
- ②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그 설명은 수공이 간다.
- ③ -우리 팀은 상대 팀에 깨지고 말았다.  
-둘 사이의 약속이 깨진 원인은 무엇일까?
- ④ -철수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이 집안에는 딸의 행동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 ⑤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커피잔을 기울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1.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 ① -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들 부부는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빌었다.
- ② - 그녀는 눈썹을 예쁘게 추켜세웠다.  
- 그 사람은 우리를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 ③ - 어머니는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끓였다.  
- 재산이 붙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르고 산다.
- ④ -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 그는 변덕이 심해서 어떤 행동이 나올지를 견잡을 수가 없다.
- ⑤ - 오래 된 상자를 들춰다가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발견하였다.  
-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의 치마를 들추며 장난을 친다.

2.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서고 말았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이지만 "체면이 서질 않는다."에서는 '깎이다'가 된다.	

보기 2		
단어	예문	반의어
먹다	그는 오늘따라 밥을 많이 먹었다.	굶다
	그는 담배를 먹으며 소설을 쓰고 있다.	[A]
	[ B ]	넣다
	너물을 먹고 탈세를 눈감아 주었다.	[C]

- |       |                    |     |
|-------|--------------------|-----|
| [A]   | [B]                | [C] |
| ① 굶다  | 상대편에게 먼저 한 골을 먹었다. | 주다  |
| ② 굶다  |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먹었다.   | 주다  |
| ③ 굶다  | 코 먹은 소리는 듣기 싫다.    | 받다  |
| ④ 줄이다 | 그는 양심을 먹고 투서를 하였다. | 받다  |
| ⑤ 줄이다 | 남은 이익은 모두 네가 먹어라.  | 버리다 |

3. <보기>의 ㉠ : ㉡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보기	
요즘 네가 둔 문제로 ㉠근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	

- ① 찬 것을 과식한 탓에 설사로 고생하였다.
- ② 모녀의 가련한 신세를 생각하면 측은해서 눈물이 난다.
- ③ 나는 꽃 중에서도 들국화를 유난히 좋아한다.
- ④ 오늘은 우리 학교의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 ⑤ 스무 살 처녀와 스물다섯 살의 총각이 서로 사랑했다.

4.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잘못된 것은?

단어	국어사전	문장 만들기	
타다	마음이 몹시 달다	▶ 긴장이 되어 입술이 바짝바짝 타다.	①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 부동산 경기를 타고 건축 붐이 일었다.	②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	③
	악기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 그 학생은 거문고 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④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	▶ 그 사람은 추위를 심하게 타는 지 몸을 움크리고 있었다.	⑤

5. 다음은 국립국어원의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답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	첨부	제목	작성자	조회수
①		'잔치를 벌이다'인가요, '벌리다'인가요? '벌이다'는 물건들을 늘어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벌리다'는 물건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연다는 의미는 '잔치를 벌이다'를 써야 맞습니다.	국립국어원	2077
②		'너머'와 '넘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고개 너머'에서처럼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넘어'는 동사 '넘다'에 어미 '-어'가 연결된 것으로 '국경을 넘어 갔다.'에서처럼 동작을 나타냅니다.	국립국어원	1023
③		'반듯이'와 '반드시'의 의미차이는요? "내일 반드시 오너라."처럼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일 때는 '반드시'로 쓰는 것이 맞고, "허리를 반듯이 펴고 앉아라."처럼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일 때는 '반듯이'가 맞습니다.	국립국어원	968
④		'-던지'와 '-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던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 또는 어미이고, '-든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국립국어원	2487
⑤		답을 '맞추다'와 '맞히다'의 차이는?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같게 한다.'는 의미이고 '맞히다'는 '여럿 중에서 하나를 골라 낸다.'는 의미이므로 '퀴즈의 답을 맞히다'가 옳고 '퀴즈의 답을 맞추다'는 옳지 않습니다. '맞추다'는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다'와 같이 다른 대상과 견주어 본다는 의미일 때는 맞지만, 답을 알아 말하는 경우는 '답을 맞히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국립국어원	3105



5. <보기>의 ㉠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말은?

**보기**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채하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선생(北郭先生)이었다. 그는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校訂)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육경(六經)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의로움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청상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를 둘러 봉(封)해서 '동리과부지러(東里寡婦之間)'라고 정표(旌表)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절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아들 다섯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고 있었다.

- ① 부화뇌동(附和雷同)                      ② 허장성세(虛張聲勢)                      ③ 표리부동(表裏不同)
-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⑤ 교연영색(巧言令色)

6. <보기>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 반응은?

**보기**  
 어휘는 역사성을 지니므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의미가 변한다. 의미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의미 확대 - 그 의미의 영역이 넓어진 경우  
 예 : '영광'은 당상관 등 급수 높은 공무원, 또는 지체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중년 · 노년의 남자를 두루 이르는 말이 되었다.  
 (나) 의미 축소 - 그 의미의 영역이 좁아진 경우  
 예 : '계집'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자를 두루 칭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여자를 낮추어 부를 때에만 사용되는 말이 되었다.  
 (다) 의미 전이 - 그 의미의 영역이 자리를 옮긴 경우  
 예 : '어리다'라는 말은 원래 '어리석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① '세수하다'라는 말은 원래 손을 씻는 행위를 나타내었지만, 지금은 얼굴까지 씻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가)의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다리'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원래 다리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책상'이나 '지게'의 다리와 같이 무생물에까지 적용되고 있잖아.
- ③ '놈'이라는 말은 (나)의 예로 볼 수 있겠군. 원래 '놈'은 남자를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를 낮추는 말로 사용되고 있잖아.
- ④ '씩씩하다'라는 말도 (나)의 예로 들 수 있어. 이말은 원래 엄한 태도를 이르는 '씩씩하다'에서 온 말이지만, 지금은 용감하고 군성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거든.
- ⑤ '어쩍다'라는 말은 원래 '불쌍하다'라는 뜻을 지닌 '어엿다'에서 온 말이지만, 지금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의미로 바뀌어 쓰이고 있어. 그러니까 (다)의 예가 될 수 있겠군.

7.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과 관계 있는 관용적 표현은?

**보기**  
 문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알파벳도 그림 문자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그 어떤 문자도 한자만큼 그림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의미 또한 복합적으로 이해되는 예는 없다. 그래서 옛날의 선비들은 글을 쓰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을 구분하지 않았다. 글을 곧 뜻을 전하는 문자가 되는 동시에 뜻을 새기는 그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하나(書畫一致)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여기에서 수묵화(水墨畵)나 문인화(文人畵)니 하는 특별한 그림 양식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시대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글과 그림이 함께 나타난다. 예컨대 산수나 사군자를 그려 놓고 그 여백에다 그림의 뜻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다. 이른바 화제(畫題)라는 것인데, 이것들은 학문이 깊은 선비의 것일수록 뜻이 심오하여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림은 처음부터 글을 의지하게 되며, 글 또한 어느 정도는 그림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그림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을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완벽한 표현으로 독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글씨를 쓰던 묵필(墨筆)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반대로 그림을 그리던 묵필로 문득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 넣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묵화나 문인화 양식이 정착되었다. 단순히 먹으로 그린 그림에 한두 가지 채색이 가필된다든가, 또는 먹 자체를 연하게, 진하게 구분하여 강약의 리듬을 만들면서 서서히 그림의 우세로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 ① 검둥개 먹 강기둥
- ② 외손백이 못 운다.
- ③ 물어도 준치 썩어도 생치
- ④ 아랫돌 빼서 윗돌 끈다.
- ⑤ 범은 그러도 黽다귀는 못 그린다.

기출유형,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담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정'입니다.
-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보기>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러나 보조 용언이 2개 이상 붙어 있을 때는 읽기 쉽게 띄어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그리고 의존 명사 '양, 체, 척, 만, 법, 뜻'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도 붙여 씀을 허용한다. 그리고 본래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 없지만 하나로 굳어진 말은 반드시 붙여 쓴다.  
 ㉠ 음식을 먹어도 보아라.                      ㉡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공부는 안 하고 잘도 놀아나는구나!                      ㉣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단.  
 ㉤ 밥을 먹는척하고만 있다.

- ① ㉠에서 '먹어 보아라'라고 표현한다면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겠군.
- ② ㉡에서 '덤벼들다'가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다면 합성 동사로 보아야겠군.
- ③ ㉢에서 '만'을 넣었을 때에는 '놀아만 나는구나'라고 해야 적절한 표기가 되겠군.
- ④ ㉣에서 '떠내려가버렸단'이라고 쓰면 읽기 쉽게 띄어 쓰라는 규정에 맞지 않겠군.
- ⑤ ㉤에서 '먹는 척하고만 있다'라고 쓰면 띄어쓰기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겠군.

2.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여기서 사건시는 동적이 일어나는 시점을,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가 말하는 시점을 말한다. 미래 시제 표현으로는 선어말어미 '-겠-'이 대표적이다.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도 쓰인다.

**보기 2**  
 ㄱ. 어제는 굉장히 신이 났겠네.  
 ㄴ. 그 일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ㄷ. 지금도 고향에는 꽃들이 만발하겠지.  
 ㄹ. 중학생도 아마 그 정도의 문제는 풀겠단.

- ① ㄱ의 '-겠-'은 단순한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이므로군.
- ② ㄴ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군.
- ③ ㄷ의 '-겠-'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의 추측을 표현하는군.
- ④ ㄹ의 '-겠-'은 시제보다는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군.
- ⑤ '-겠-'이 추측과 의지를 나타낼 때에는 부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군.

3. <보기>를 바탕으로 '안긴 문장'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나는 농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빌었다.  
 ㄴ. 나는 네거리에 있는 제과점에 가는 철수를 만났다.  
 ㄷ. 그는 자기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 ① 밑줄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ㄱ, ㄴ,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속에서 하는 구실이 다릅니다.
- ③ ㄴ의 밑줄 친 문장은 문장 속에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습니다.
- ④ ㄴ의 밑줄 친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는 각각 '제과점'과 '철수'입니다.
- ⑤ ㄷ의 밑줄 친 부분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업을'을 꾸미고 있습니다.

4. <보기 1>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학습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사동사는 주동사인 자동사나 타동사, 또는 형용사에 사동의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어서 이루어진 타동사이다. 사동 접사는 '재우다' 같이 두 개의 사동 접사가 붙은 것도 있다. 그리고 사동사는 파생동사인 만큼 단순히 주동에 대한 사동으로서의 의미 외에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 있다. 또한 사동사는 직접 하게 하였는 지, 간접적으로 하게 하였는지 그 뜻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주동사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 그 집에서 돼지를 먹이나오?  
 ㉡ 할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  
 ㉢ 할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하셨다.  
 ㉣ 내가 그만 집을 태우고 말았다.

- ① ㉠의 '먹이다'는 형태는 사동이지만 여기에서는 '사육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 ② ㉡의 '먹이다'는 밥을 직접 먹었다는 의미와 밥을 먹게 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 ③ ㉢에서 나온 형태로 보아 '먹이다'와 '태우다'는 사동사로 볼 수 있다.
- ④ ㉣과 같이 '-게 하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사동문은 직접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 할 수 있다.
- ⑤ ㉣의 '태우다'는 태우는 행위를 직접 했다는 뜻과 운수가 나빠서 집이 탔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학습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주로 특수 어휘, 그 중에서도 특수한 동사를 사용한다. 객체 높임법에는 공손 표시의 선어말 어미, 높임의 의미를 지닌 조사도 활용한다.

**보기 2**  
 ㄱ. 제자로서 스승에게 여쭙는 글의 내용이 좀 주제 넘는다는 느낌이 든다.  
 ㄴ. 친구분께서 내려가시는 길에 잠시 할아버님을 뵙자고 하십니다.  
 ㄷ. 기차 시간이 좀 남았기에 그 동안의 안부라도 여쭙고자 왔습니다.  
 ㄹ. 제가 어른을 뵈옵기는 오늘 새벽이 처음이외다.

- ① ㄱ은 '여쭙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객체인 스승을 높이고 있다.
- ② ㄴ은 '스승에게'보다는 '스승께'라고 하면 더 적절한 높임이 된다.
- ③ ㄴ은 객체인 '친구분'을 '께서'와 동사 '뵙다'를 같이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 ④ ㄷ은 대상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쭙다'를 사용하여 그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⑤ ㄹ은 높임 어휘인 '뵙다'와 공손 표시인 '-옵-'을 통하여 '어른'을 더욱 높이고 있다.

6.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녁에 오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② 나는 공부는 못하더라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다.
- ③ 우리들의 의견은 주변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쪽으로 모였다.
- ④ 사람들이 악물을 잘못 옹호하여 금고실에 실려 오는 경우가 있다.
- ⑤ 우리 사법 체계가 더 적극적으로 실종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표준어 규정  
 제12항 '읏-' 및 '읏-'은 명사 '위'에 맞추어 '읏-'으로 통일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읏-'으로 발음되는 형태로 표준어로 삼는다.

- ① '웃어른'은 어른의 '위', '아래'가 없으니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입니다.
- ② '위쪽'은 '위' 다음에 된소리가 나온 경우이니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입니다.
- ③ '위층'은 '위' 다음에 거센소리가 나오게 되니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입니다.
- ④ '윗돈'은 '읏'과 '읏' 중에서 '읏'으로 통일하라는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입니다.
- ⑤ '윗목'은 '아랫목'이라는 말이 대립을 이루니 규정에 따라 '읏-'으로 써야 합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발음에 대해 학습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된소리되기 현상 : 두 개의 안올림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 사잇소리 현상 : 두 개의 단어가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일 때 일어난다.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다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3.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으로 발음한다.

- ① '넋가'를 [내 : 까]라고 발음해도 되고 [넋가]라고 발음해도 된다.
- ② '산길'을 [산깁]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것이다.
- ③ '젓소'를 [젓쏘]라고 발음하는 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에 의한 것이다.
- ④ '꽃밭'을 [곤밭]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법 제30항 2에 의한 것이다.
- ⑤ '갯잎'을 [갯닙]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법 제30항 3에 의한 것이다.

6. 어휘를 문맥에 맞도록 바르게 선택하지 못한 것은?

- ① 그 회사는 어음을 (결제/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 ②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갖은 (곤욕/곤혹)과 오열과 박대를 받았다.
- ③ 그는 작년에 했던 그 연극을 (재연/재현)하려고 혼자서 동분서주 했다.
- ④ 그는 내 담력을 (시련/실험)하여 보려고 밤에 공동 묘지에 가도록 했다.
- ⑤ 노사 양측은 임금 (보전/보존)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7. <보기>의 글을 고쳐쓰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인간은 비록 언어 없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는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두고 괴롭히고 있는 질문이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는데도,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언어가 ㉡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상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 ㉤ 결국 인간은 도구로 하여 생각을 하며, 그 결과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점점 발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① ㉠의 문장에서 부사어 '비록'을 '과연'으로 바꿔야 한다.
- ② ㉡의 문맥을 고려하여 '없으면'으로 바꿔야 한다.
- ③ ㉢의 문장에서 '서로'와 '상호'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상호'를 삭제해야 한다.
- ④ ㉣에는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이 다르다.'와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 ⑤ ㉤의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주어 다음에 '언어를'이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7. 인터넷 지식 검색을 통해 찾은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합 검색 : 문장성분**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 ① '너 어디 가니?'라는 문장에는 주성분이 두 개구나.
- ②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문장에는 부속 성분이 두 개구나.
- ③ '아, 드디어 방학이다.' 라는 문장에서 '아'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구나.
- ④ '언이 매우 높고 날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매우'는 부속 성분이며, '높이'라는 부사어를 수식하는구나.
- ⑤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라는 문장에서 '학교에서'는 서술어를 꾸미는 것으로 보아 부사어이구나.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보조사에 대해 학습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사로서 여러 격으로 쓰이면서 일정한 뜻을 보태어 주는 것을 보조사라 한다. 그런데 보조사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조사와 다양하게 같이 쓰이기도 한다.  
 ㄱ. 시골에서라도 한경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ㄴ. 여기서부터는 검문을 자주한다.  
 ㄷ. 국수는 먹었지만 밥은 먹지 않았다.

- ① ㄱ은 격조사와 보조사가 같이 쓰인 사례이다.
- ② ㄴ에 사용된 보조사는 필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ㄴ은 격조사에 보조사가 붙고 거기에 또 보조사가 붙은 경우이다.
- ④ ㄷ에 사용된 보조사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 ⑤ ㄷ에 사용된 보조사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6.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쓰기를 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상대방의 의견 : 선의의 경쟁은 얼마나 보기 좋은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극을 주고 받게 되고 그것이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건>  
 ■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반론의 여지를 남긴다.  
 ■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다.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뒷받침한다.  
 ■ 글쓴이의 대안을 제시한다.

- ① 규칙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쟁은 진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고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누구나 낙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배려이다.
- ② 경쟁은 발전적 사회를 위한 필요약이다. 그 자체로 비정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았을 때의 경쟁력은 대단한 것이다. 만약 경쟁 없이 나태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라. 무리한 권태만 있을 것이다.
- ③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쟁에는 선의가 개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 같이 모든 것이 경쟁 체제로 가는 사회에서의 경쟁에는 선의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 모두 1등이 되기 위하여 달리는 데 누가 규칙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 ④ 경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교육을 받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경쟁 체제로 끌고 간다면 학생들의 인성이 경직 되어 정수 따는 기계로 만들 수도 있다.
- ⑤ 선의의 경쟁이 지켜지지만 한다면 경쟁은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한 경쟁으로 이어져 경쟁이 심화되면 선의의 경쟁이 잘 지켜질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정글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경쟁 못지않게 조화와 협조의 자세가 필요하다.

7.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들어내다 : 아무리 죽 떠낸 자리라지만 자꾸 들어내면 죽이 나게 마련이다.  
 -드러내다 : 안개가 점차 사라지자 산이 자신의 웅장한 풍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 ② -맞추다 : 독서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상품을 준다고 하니 열심히 참여하자.  
 -맞히다 :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단서를 퍼즐 맞히듯이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③ -쫓다 : 책에서 읽은 위인의 훌륭한 점을 쫓아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쫓다 : 경찰이 도망가는 도둑을 발견하고 열심히 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 ④ -가르치다 : 선생님은 정년 퇴직을 하신 뒤 문화 회관에서 어린이에게 한자를 가르치신다.  
 -가리키다 : 대원들의 몸이 지쳤지만 등반 대상은 정상을 가리키며 힘을 내자고 하였다.
- ⑤ -너머 : 저 산 너머에는 우리가 찾는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넘어 : 시련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는 자세가 필요

7. <보기>의 ㉠과㉡을 참고하여 ㉢의 단어들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보기>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비음에는 'ㄴ, ㄹ, ㅇ'이 있고, 유음에는 'ㄹ' 한 개만 있다.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선입천장소리 'ㅈ, ㅊ'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 변동하는 것이다.  
 ㉢ 밭물, 굴이, 해돋이, 섬리, 신라

- ① '밭물'은 [밭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다.
- ② '굴이', '해돋이', '섬리'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③ '밭물', '해돋이', '신라'는 자음동화가 일어난다.
- ④ '섬리'는 [섬리]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⑤ '해돋이'는 'ㄷ'이 모음 'ㅣ'를 만나서 [ㅈ]으로 발음된다.

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영자가 그러는데, 여의도에 꽃이 만발해서 정말 예쁘대. 우리 거기 놀러가자. 지나다 봤는데 저쪽 마을 공원에도 꽃나무들이 얌네. 거기나 가지.
- ② 방 한쪽 구석에 남은 백동 춧대만이 과거의 화려함을 말해 주고 있다. 오직 머느리만이 제삿상에 올린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다.
- ③ 영화는 지리산 자락으로 퍼지는 노을을 보며 "정말 멋있어!"하고 외쳤다. 미호는 자신은 아직도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멋쩍어했다.
- ④ 철수가 어제 저녁에 비빔국을 먹고 용트림하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밭골을 딛고 용트림을 하며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과 하늘의 구름 등이 생동감 있다.
- ⑤ 현재 시간이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 시각을 보냈다.

8. <보기>의 설명을 참고로 했을 때, 성격이 같은 어휘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하나의 말소리에 여러 개의 의미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낱말들을 '동음 이의어'라고 한다.  
 예 <들다>  
 ■ 들다 1 : (안이나 속으로) 가거나 오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이루어지다.  
 (그릇의 속에) 있다.  
 ■ 들다 2 : (날이) 비나 눈이 그치고 좋아지다.

- ①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다.
- ② 날이 들면 떠나야겠다.
- ③ 잠자리에 들자마자 코를 곤다.
- ④ 바구니 속에는 예쁜 꽃들이 들어 있었다.
- ⑤ 관객이 모두 안으로 들자마자 공연이 시작되었다.

5. '붙이다 / 부치다' 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그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단어	예문	유의어	반의어
①	붙이다	그는 성냥으로 담뱃불을 <u>붙였다</u> .		끄다
②	붙이다	아들에게 학비를 <u>붙였다</u> .	보내다	
③	붙이다	사건을 공판에 <u>붙였다</u> .	회부하다	
④	부치다	벽지를 벽에 <u>부쳤다</u> .		떨어지다
⑤	부치다	나는 그에게 경호원을 <u>부쳤다</u> .	배속시키다	

7. ㉠과 ㉡이 '-시(視)'를 붙인 말 중,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보기>

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참다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거기에서는 인간을 ㉠도외시(度外視)한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도, 물건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 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 매우 적합한 정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 ①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禁忌視)하고 있는 것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 ② 소설의 주인공과 작가는 별개의 존재이므로, 이 둘을 동일시(同一視)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사회의 무질서를 당연시(當然視)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다.
- ④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멀리하며 청안시(靑眼視)했고, 그녀는 그로 인해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 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적대시(敵對視)하는 사회적 경향이 생겨났다.

8. <보기 1>의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제9항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내기	-나기	
냄비	남비	서울-, 시골-, 신촌-, -푹
동댕이-치다	동당이-치다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 아지랑이 (○) / 아지랭이 (X)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이외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 유기장이(○) / 유기쟁이(X)

멋쟁이(○) / 멋장이(X)

소금쟁이(○) / 소금장이(X)

<보기 2>

- ㉠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품이 여간나기가 아니었다.
- ㉡ 뒷집에는 욕심쟁이로 소문난 욕쟁이 할머니가 산다.
- ㉢ 봄이 되면 땅에서는 아물아물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 ①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 '여간나기'는 '여간내기'로 바꿔 써야 하겠군.
- ② 이 조항의 용례를 검토해 본 결과, '-내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는 특정 지역 출신자이거나 어떤 축정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이겠군.
- ③ [붙임 2]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의 '욕쟁이'는 그대로 두되 '욕심쟁이'는 '욕심장이'로 바꿔 써야 하겠군.
- ④ ㉢의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삼은 걸 보니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어.
- ⑤ 표준어 규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을 반영하여 바뀔 수도 있겠군.

7.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발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이 책은 글씨가 너무 작다.
- ㄴ. 그 집에서는 오늘 들잔치가 있다.
- ㄷ. 안개만 걸히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 ㄹ.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① 위 문장은 모두 주술 관계가 두 번씩 이루어지는 겹문장입니다.
- ② ㄱ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겹문장입니다.
- ③ ㄷ의 앞문장은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뒷문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 ④ ㄹ의 앞문장과 뒷문장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 ⑤ ㄷ과 ㄹ은 두 개의 문장이 모여서 이어진 문장이 되었습니다.

8.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내용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한 쌍의 단어가 반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공통요소가 있고, 한 매개 변수만이 달라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요소가 있으며, '성(姓)'은 매개 변수로서 서로 반대되고 있다. 그럴 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의 관계에 있게 된다. 반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다의어의 경우 의미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가다'에 대해 '목적한 곳을 향하여 움직이다'는 뜻일 때는 '오다'가 반의어이고, '군대에 가다'에서처럼 '떠나다'의 뜻일 때는 '돌아오다'가 반의어이며, '맛이나 음식이 변하다'의 뜻일 때는 '유지되다'가 반의어일 것이다.

- ① 쥐다 : (주먹을)퍼다, (먹살을)놓다.
- ② 벗다 : (모자를)쓰다, (지계를)지다.
- ③ 받다 : (선물을)주다, (공을)던지다.
- ④ 열다 : (방문을)닫다, (자물쇠를)잠그다.
- ⑤ 차다 : (시계를)벗다, (공을)받다.